

證으로 分類한 傷寒書에 引用된 《傷寒雜病論》과 《金匱要略》의 頭痛, 項強 條文에 대한 研究 - 《註解傷寒論》과 《金匱要略方論》을 中心으로 -

1,2박영환, 2,3강연석

¹시중한의원, ²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³한국전통의학연구소

A study on the headache and the stiff neck in Shanghanlun(傷寒論) articles quoted in the Shanghan Books(傷寒書) classified as a symptom <Shanhanjabingrun : 傷寒雜病論> and <Jinkaeyauruo : 金匱要略> are at the core

1,2Yung-Hwan Park, 2,3Yeonseok KANG

¹Si-Joong Korean Medical Clinic, ²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³Research Center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 headache has various causes and symptoms in clinic. Therefore The headache and the stiff neck also can found in many articles of Shanghanlun(傷寒論) On Cold Damage. In the past, many doctors classified the headache and the stiff neck according to their own theories, and published some Shanghan books(傷寒書). In this study, I select ten Shanghan books which classified the headache and the stiff neck in table of contents, and compared with the articles of <Shanhanjabingrun : 傷寒雜病論> and <Jinkaeyauruo : 金匱要略>, the first books of Shanghanlun(傷寒論) to found meanings of them.

As a result, the Osuyutang(吳茱萸湯) was the most quoted herb medicine of <Shanhanjabingrun : 傷寒雜病論>. The second was Jowisunggitang(調胃承氣湯) and Sosunggitang(小承氣湯), the group of Sunggitang(承氣湯類). Mahwangtang(麻黃湯) and Gyejitang(桂枝湯) are substituted as Ganghwalchunghwatang(羌活沖和湯) in <shanhanjanjae : 傷寒捷訣> for simply prescribe medicine, or even not mentioned as in <shanhanliusu : 傷寒六書>. This can be understand as a result of copy the previous generation doctor's writings, not as a study of <Shanhanjabingrun : 傷寒雜病論> and <Jinkaeyauruo : 金匱要略>.

The articles of the headache in <Jinkaeyauruo : 金匱要略> was not quoted in that ten books. But the stiff neck was frequently quoted that Gyejigualutang(桂枝加括藶湯), Dehamhyungtangwan(大陷胸湯丸) articles includes chibyeong(瘧病) The Opisthotonos, gyongbyong(瘓病) The Convulsions, Yuchi(柔痙) Opisthotonos With Sweat And Fever.

Key words : Shanghanlun, Jinkaeyauruo, headache, stiff neck, On Cold Damage

I. 緒論

頭痛은 다양한 原因과 證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韓醫學에서도 여러 가지 處方과 治療法이 존재한다. 傷寒論의 頭痛과 項強證도 그 原因이 매우 다양하여 여러 條文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歷代 醫家들도 이를 각자의 醫案에 따

라 別個의 證으로 分類하여 書籍으로 남겨놓기도 하였다. 이렇게 頭痛과 項強證에 대한 目次가 따로 있는 傷寒書籍을 조사해보니 10種 정도가 되었는데, 이들 書籍에서 《傷寒雜病論》과 《金匱要略》에 언급된 頭痛과 項強證을 어떻게 分類하였는지 서로 비교 검토 해보고 그 有意性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우선 비교 검토할 傷寒論 條文의 範圍를 정해야 했다. 이를 위해 傷寒論 板本の 醫史學의 考察이 필요하였다. 현재 傷寒論은 다양한 板本이 존재한다. 하지만 傷寒論의 原本

접수▶2011년 11월 18일 수정▶2011년 12월 20일 채택▶2011년 12월 24일 교신저자▶ 강연석, 전북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2층 의사학교실 Tel : 063-850-6984 E-mail : yeonkang@wku.ac.kr

16卷은 일찍이 소실되어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며, 훗날 王叔和가 《脈經》을 저술하면서 卷7, 卷8, 卷9에 撰次하여 수록한 것이 현존하는 《傷寒雜病論》의 가장 오래된 板本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孫思邈의 노력으로 《千金要方》 9卷과 《千金翼方》 9卷, 10卷에 수록되었지만 《傷寒雜病論》 전부를 다 수록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王燾의 《外臺秘要》에서도 傷寒論의 일부내용만 수록하였다. 이후 宋代에 이르러서 醫書의 수집을 重視하면서 傷寒論의 秘傳本을 찾게 되어 林億 등이 校正醫書局에서 傷寒論을 정리하여 《傷寒論》, 《金匱要略方論》, 《金匱玉函經》 3책으로 分編, 간행되어서 傷寒論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傷寒論의 條文이 오묘하고 간략하여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널리 연구되지는 못하였는데, 金代가 되어야 비로소 成無己가 撰成한 《註解傷寒論》이 著述되고 傷寒論을 《內經》, 《難經》, 《脈經》, 《針經》 등 ‘經’으로 ‘論’을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여 傷寒論 22篇 全體를 註解하였다. 그리하여 後人들이 간편하고 쉽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¹⁾ 이러한 이유로 현재 成無己의 《註解傷寒論》은 가장 널리 보급된 傷寒論서적이 된 것이다.

또 《傷寒雜病論》은 東漢末에 著作되어 魏晉, 唐代, 宋代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散亂되어 時代에 따라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를 반복하였다. 그래서 傷寒論은 唐本, 宋本, 康治本, 康平本, 高繼衝本, 敦煌本 등 현재 여러 板本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歷代醫家들은 《傷寒雜病論》의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의 著者에 관해 수많은 논쟁을 해왔다. 즉, 이 三篇은 張仲景의 著作이 아니라 王叔和의 著作이라는 主張이었다. 예를 들어 孫思邈은 <傷寒例>을 王叔和의 著作으로 보았으며, 王燾는 몇몇 문장을 王叔和의 著作으로 보았다. 王履는 <傷寒例>, <六經病篇>을 제외한 모든 篇을 王叔和의 것으로 보았고, 方有執은 《傷寒論條辨》에서 <傷寒例>를 빼버리자고 하였으며 王叔和를 가짜를 만든 僞僞이라고 맹렬히 비판하였다. 그런데 1900年 敦煌에서 발견된 敦煌本 傷寒論에는 <辨脈法>, <傷寒例>가 필사되어 있는데 이는 南北朝, 隋, 唐 시대에 이미 <辨脈法>, <傷寒例>가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이 殘本을 考證해보니 王叔和가 정리한 傷寒論과 대략 100여년 정도 차이가 났다. 즉, 100년 사이에 王叔和의 《脈經》 板本이 2가지 이상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辨脈法>, <傷寒例>의 著者가 張仲景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²⁾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辨脈法>, <傷寒例>이 仲景의

著作이라는 學說에 依據하여 이를 傷寒 頭痛, 項強證의 研究에 포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成無己의 《註解傷寒論》과 《金匱要略方論》을 中心으로 傷寒論의 頭痛과 項強證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光緒 18年 9月(1892年)에 重刊된 《仲景全書》를 底本으로 하였으며, 또 歷代에 著述된 證으로 분류한 傷寒書 10卷을 통해 後世醫家들이 傷寒頭痛과 項強證을 어떻게 理解하였는지 《註解傷寒論》, 《金匱要略方論》의 原文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傷寒頭痛과 項強證의 引用에 대해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마이다.

II. 本論

1. 《傷寒雜病論》과 《金匱要略》의 頭痛, 項強證

1) 《傷寒雜病論》의 頭痛, 項強 25條文

《註解傷寒論》에서 頭痛, 項強에 관한 條文을 찾아보면 모두 25條文에서 볼 수 있었다. 이를 圖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

표 1. 《傷寒雜病論》 頭痛, 項強證의 早見表

	傷寒雜病論篇	病證 要約
1	<辨脈法第一>	邪氣가 陽中에 있을 때 나타나는 頭痛을 설명하고 있다. 陰陽脈이 모두 緊한 경우, 邪氣를 위치에 따라 上焦, 下焦, 陰中, 陽中으로 나누고 그 原因에 따라 治療法을 설명하고 그 症狀과 名稱을 나열하고 있는 條文. ⁴⁾
2	<傷寒例第三>	太陽經이 風府와 連하여 項部를 지나가므로 邪氣가 初入하면 項強證이 생긴다는 條文. ⁵⁾
3		太陽과 少陰에 모두 寒氣에 感했을 때 頭痛이 나타난다는 條文. ⁶⁾
4		7日이 되어 太陽病이 衰할 때 頭痛이 조금 낫는다는 條文. ⁷⁾
5	<辨瘧濕喝脈證第四>	濕病이 太陽證과 같이 上焦 表淺部에 있으면 頭痛이 있다는 條文. ⁸⁾

1) 맹용재 外, 《各家學說》, 大成醫學社, 2001, p.37.
 2) 박종현, 《敦煌本 『傷寒論』에 관한 研究》, 대구한의과대학 병리학 교실, p.39.
 3) 이 研究에 成無己의 註解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4) 寸口脈陰陽俱緊者, 法當清邪中於上焦, 濁邪中於下焦. 清邪中上, 名

6		太陽表病에 頭痛과 項強이 있다는 條文. ⁹⁾
7	<辨太陽病脈證並治法上第五>	앞서 <傷寒例第三>의 3번 條文과 마찬가지로 太陽病이 7일이 지나 저절로 나으면 頭痛도 저절로 낫는다는 條文. ¹⁰⁾
8		桂枝湯證에 頭痛이 있다는 條文. ¹¹⁾
9		桂枝湯去桂加茯苓白朮湯의 頭項強痛은 表證이라는 條文. ¹²⁾
10		麻黃湯證에 頭痛이 있다는 條文. ¹³⁾
11		承氣湯證에 頭痛이 있다는 條文. ¹⁴⁾
12	<辨太陽病脈證並治法第六>	四逆湯證에 頭痛이 있다는 條文. ¹⁵⁾
13		大陷胸湯證에 頭痛이 있다는 條文. ¹⁶⁾
14		太陽病 下之後 不結胸證에 脈細數하면 氣少表證이므로 頭痛이 있다는 條文. ¹⁷⁾
15	<辨太陽病脈證並治法下第七>	太陽少陽並證에도 頭項強痛이 있다는 條文. ¹⁸⁾
16		十棗湯證에 頭痛이 있다는 條文. ¹⁹⁾
17		桂枝湯證과 같은데 頭痛이 없으면 瓜蒂散證이라는 條文. ²⁰⁾
18	<辨陽明病脈證並治法第八>	陽明病에 오히려 無汗하고 小便利한 것이 2-3일 되고, 嘔而欬하고 手足厥하면 外症이므로 반드시 頭痛이 있고, 欬와 嘔가 없고 手足不厥하면 頭痛이 없다는 條文. ²¹⁾
19	<辨少陽病脈證並治法第九>	傷寒에 脈弦細하고 頭痛 發熱한 것은 少陽證이라는 條文. ²²⁾
20	<辨厥陰病脈證並治法第十二>	吳茱萸湯證에 頭痛이 있다는 條文. ²³⁾
21	<辨霍亂病脈證並治法第十三>	霍亂證은 傷寒과 같이 頭痛 發熱 身痛 惡寒이 있으나 吐利하는 것이 다르다는 條文. ²⁴⁾
22		霍亂證에 頭痛이 있으며 熱多欲飲水者는 五苓散을 쓰고, 寒多不用水者는 理中丸을 쓴다는 條文. ²⁵⁾
23	<辨不可發汗病脈證並治法第十五>	傷寒頭痛에 中風처럼 항상 약하게 땀이 나고 熱이 나며 嘔하는 者는 寒邪가 傳하여 熱로 되어 裏에 가는 것이므로 汗하거나 下하면 안 된다는 條文. ²⁶⁾
24	<辨不可下病脈證並治法第二十>	傷寒에 寒邪가 熱邪로 變하여 發熱, 頭痛, 微汗出한 경우 反下하면 短氣, 小便難, 頭痛, 背強하게 된다는 條文. ²⁷⁾
25		傷寒에 寒變熱해서 發熱하고 口中勃勃氣出하고 그 熱이 蒸於上하면 頭痛, 目黃하고 衄가 멈추지 않는다는 條文. ²⁸⁾

일찍이 成無己는 註解를 통해 “頭痛者太陽也”²⁹⁾라고 하여 太陽證의 代表的인 症으로 認識했다. 위의 圖表를 참조해보면 이를 簡明하게 알 수 있다. 우선 <辨脈法第一>에서는 傷寒의 여러 病症을 診脈法을 통해 자세히 說明하고 있다. 여기서는 1개의 條文에서 頭痛을 찾을 수 있는데 霧露之氣가 太陽經에 있을 때 나타난다고 했다.³⁰⁾ <傷寒例第三>에서는 傷寒이 생기는 原理를 四時氣候變化에 맞추어 說明하였는데, 傷寒이 진행되면서 날짜에 따라 나타나는 頭痛을 3개의 條文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때도 역시 頭痛을

曰潔也, 濁邪中下, 名曰渾也. 陰中於邪, 必內慄也, 表氣微虛, 裏氣不守, 故使邪中於陰也. 陽中於邪, 必發熱, 頭痛, 項強, 頸攣, 腰痛, 脛酸, 所爲陽中霧露之氣, 故曰清邪中上. 濁邪中下, 陰氣爲慄, 足膝逆冷, 便溺妄出, 表氣微虛, 裏氣微急, 三焦相溷, 內外不通, 上焦佛鬱, 藏氣相熏, 口爛食斷也. 中焦不治, 胃氣上衝, 脾氣不轉, 胃中爲濁, 榮衛不通, 血凝不流. 若衛氣前通者, 小便赤黃, 與熱相搏, 因熱作使, 遊於經絡, 出入藏腑, 熱氣所過, 則爲癰腫. 若陰氣前通者, 陽氣厥微, 陰無所使, 客氣內入, 嚏而出之, 聲啞咽塞, 寒厥相逐, 爲熱所擁, 血凝且下, 狀如豚肝, 陰陽俱厥, 脾氣孤弱, 五液注下, 下焦不闔, 清便下重, 令便數難, 臍築淋痛, 命將難全. 張機(206), 《仲景全書》, 集文書局(影印), 1983, p45.

- 尺寸俱浮者, 太陽受病也, 當一二日發. 以其脈上連風府, 故頭項痛, 腰脊強. 上揭書, p.80.
- 若兩感於寒者, 一日太陽受之, 卽於少陰俱病, 則頭痛, 口乾, 煩滿而渴, 二日陽明受之, 卽與太陰俱病, 則腹滿身熱, 不欲食, 譫語, 三日少陽受之, 卽與厥陰俱病, 則耳聾, 囊縮而厥, 水漿不入, 不知人者, 六日死. 若三陰三陽, 五臟六腑皆受病, 則榮衛不行, 腑臟不通, 則死矣. 上揭書, p.83.
- 其不兩感於寒, 更不傳經, 不加異氣者, 至七日太陽病衰, 頭痛少愈也, 八日陽明病衰, 身熱少歇也, 九日少陽病衰, 耳聾微聞也, 十日太陰病衰, 腹減如故, 則思飲食, 十一日少陰病衰, 渴止舌乾, 已而嚏也, 十二日厥陰病衰, 囊縱, 少腹微下, 大氣皆去, 病人精神爽慧也. 上揭書, p.84.
- 濕家病, 身上疼痛, 發熱面黃而喘, 頭痛, 鼻塞而煩, 其脈大, 自能飲食, 腹中和無病, 病在頭中寒濕, 故鼻塞, 內葯鼻中則愈. 上揭書, p.101.
- 太陽之爲病, 脈浮, 頭項強痛而惡寒. 上揭書, p.104.
- 太陽病, 頭痛至七日已上自愈者, 以行其經盡故也. 若欲作再經者, 針足陽明, 使經不傳則愈. 上揭書, p.106.
- 太陽病, 頭痛發熱, 汗出惡風者, 桂枝湯主之. 上揭書, p.110.
- 服桂枝湯, 或下之, 仍頭項強痛, 翁翁發熱, 無汗, 心下滿, 微痛, 小便利者, 桂枝湯去桂加茯苓白朮湯主之. 上揭書, p.117.
- 太陽病, 頭痛發熱, 身疼, 腰痛, 骨節疼痛, 惡風, 無汗而喘者, 麻黃湯主之. 上揭書, p.125.
- 傷寒不大便六七日, 頭痛有熱者, 與承氣湯. 其小便利者, 知不在裏, 仍在表也. 當須發汗, 若頭痛者必衄, 宜桂枝湯. 上揭書, p.134.
- 病發熱, 頭痛, 脈反沉, 若不瘥, 身體疼痛, 當救其裏, 宜四逆湯. 上揭書, p.150.
- 太陽病, 脈浮而動數, 浮則爲風, 數則爲熱, 動則爲痛, 數則爲虛, 頭痛發熱, 微盜汗出而反惡寒者, 表未解也. 醫反下之, 動數變遲, 膈內拒痛, 胃中空虛, 客氣動膈, 短氣躁煩, 心中懊憹, 陽氣內陷, 心下因硬, 則爲結胸, 大陷胸湯主之. 若不結胸, 但頭汗出, 餘處無汗, 劑頭而還, 小便不利, 身必發黃也. 上揭書, p.175.
- 太陽病下之, 其脈促, 不結胸者, 此爲欲解也. 脈浮者, 必結胸也. 脈緊者, 必咽痛. 脈弦者, 必兩脅拘急, 脈細數者, 頭痛不止. 脈沉緊者, 必欲嘔. 脈沉滑者, 協熱利. 脈浮滑者, 必下血. 上揭書, p.180.
- 太陽與少陽並病, 頭項強痛, 或眩暈, 時如結胸, 心下痞硬者, 當刺大椎第一間, 肺俞, 肝俞, 慎不可發汗, 發汗則譫語. 脈弦, 五六日, 譫語不止, 當刺期門. 上揭書, p.182.
- 太陽中風, 下利嘔逆, 表解者, 乃可攻之. 其人禁禁汗出, 發作有時, 頭痛, 心下痞硬滿, 引脅下痛, 乾嘔短氣, 汗出不惡寒者, 此表解裏未和也. 十棗湯主之. 上揭書, p.188.
- 病如桂枝證, 頭不痛, 項不強, 寸脈微浮, 胸中痞硬, 氣上沖咽喉, 不得息者, 此爲胸有寒也. 當吐之, 宜瓜蒂散. 上揭書, p.196.
- 陽明病, 反無汗, 而小便利, 二三日, 嘔而欬, 手足厥者, 必苦頭痛. 若不欬不嘔, 手足不厥者, 頭不痛. 上揭書, p.211.
- 傷寒, 脈弦細, 頭痛, 發熱者, 屬少陽. 少陽不可發汗, 發汗則譫語. 此屬胃, 胃和則愈, 胃不和則煩而悸. 上揭書, p.237.
- 乾嘔, 吐涎沫, 頭痛者, 吳茱萸湯主之. 上揭書, p.280.
- 問曰: 病發熱, 頭痛, 身疼, 惡寒, 吐利者, 此屬何病? 答曰, 此名霍亂. 自吐下, 又利止, 復更發熱也. 上揭書, p.281.
- 霍亂, 頭痛, 發熱, 身疼痛, 熱多. 欲飲水者, 五苓散主之. 寒多不用水者, 理中丸主之. 上揭書, p.282.
- 傷寒頭痛, 翁翁發熱, 形象中風, 當微汗出自嘔, 嘔者下之, 益煩心中懊憹如飢. 發汗則致, 身強, 難以屈伸, 熏之則發黃. 不得小便, 灸則

太陽證으로 보았다. <辨瘧濕喝脈證第四>에서도 1개 條文에서 나타나며 濕病의 頭痛도 太陽證과 類似한 類型의 病理現狀으로 認識하였다. <辨太陽病脈證並治法上第五>에서는 4개의 條文에 있는데 처음의 1개는 太陽表證에는 頭痛과 項強證이 있다는 것이며, 다음은 <傷寒例第三>에서와 마찬가지로 날짜에 따라 太陽證이 사라지면 頭痛도 없어진다는 條文이고 나머지는 桂枝湯條文과 桂枝湯去桂加茯苓白朮湯의 條文이다. 모두 太陽頭痛이며 表證에 속한다. <辨太陽病脈證並治法第六>에서는 5개의 條文에서 볼 수 있는데, 桂枝湯의 頭痛은 太陽中風, 麻黃湯의 頭痛은 太陽傷寒으로 보았으며, 四逆湯과 大陷胸湯의 頭痛, 不結胸證에 脈微細한 것은 모두 表病으로 認識했다. 그리고 <辨太陽病脈證並治法下第七>에서는 3개의 條文이 있는데 우선 太陽少陽並證에서도 頭項強痛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十棗湯의 頭痛을 邪氣內畜으로 보았으며, 瓜蒂散에서의 頭痛은 그 여부에 따라 桂枝湯證과 서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았다. <辨陽明病脈證並治法第八>에서는 1개의 條文에서 찾을 수 있는데 陽明傷寒에서 寒邪가 外에 있으면 반드시 頭痛이 생긴다고 했다. 또 <辨少陽病脈證並治法第九>에서는 小陽證에 頭痛은 表症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症狀으로 보았으며, <辨厥陰病脈證並治法第十二>에서 1개의 條文에서 吳茱萸湯의 頭痛은 앞서와 다르게 寒氣上攻을 그 原因으로 보았다. <辨霍亂病脈證並治法第十三>의 2개 條文에서는 霍亂은 傷寒처럼 頭痛이 있으나 吐利하는 것이 다르다면서 傷寒의 症狀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았고, <辨不可發汗病脈證並治法第十五>에서는 1개의 條文에서 볼 수 있는데, 頭痛이 寒邪가 熱로 變하여 裏에 傳하여 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마지막으로 <辨不可下病脈證並治法第二十>에서도 傷寒이 寒變熱해서 發熱하고 그 熱이 蒸於上하면 頭痛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以上을 볼 때 傷寒頭痛은 일반적으로 寒邪가 太陽表證에 머물렀을 때 생기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 頭痛이 病을 진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濕病은 頭痛으로 濕邪의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瓜蒂散證과 霍亂의 頭痛도 傷寒辨證의 기준이 되었다. 또한 吳茱萸湯의 頭痛은 內部的 寒氣가 上攻해서 생긴 것이고, 十棗湯의 頭痛은 邪氣內畜가 原因이었다. 이 외 寒邪가 熱로 變하여 생기는 頭痛도 2條文에서 나타났지만 결국 寒邪가 原因이었다.

표 2. 《傷寒雜病論》 頭痛, 項強證의 原因에 따른 分類

頭痛	寒邪가 原因	18條文 2條文	寒邪가 太陽表에 있음. 寒邪가 熱로 變함.
	寒邪와 區別	瓜蒂散證, 霍亂, 濕家	辨證의 기준이 됨.
	其他原因	吳茱萸湯證 十棗湯證	寒氣가 上攻. 邪氣內畜.

2) 《金匱要略》의 頭痛, 項強 10條文

《金匱要略》의 頭痛, 項強에 관한 條文을 찾아본 결과 다음 10條文을 찾을 수 있었다.

이상의 10條文을 圖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金匱要略》의 頭痛, 項強證 早見表

	金匱要略篇	病證 要約
1	<臟腑經絡先後病脈證第一>	病의 종류에는 모두 360가지가 있는데 그 중 陽病은 18가지가 있고 그 가운데에 頭痛이 있다는 條文. ³¹⁾
2	<瘧濕喝病脈證第二>	瘧病에 頭項強急의 證이 있다는 條文. ³²⁾
3	<瘧濕喝病脈證第二>	위의 《傷寒雜病論》과 중복되는 것으로, 濕病이 太陽證과 같이 上焦 表淺部에 있으면 頭痛이 있다는 條文. ³³⁾
4	<百合孤感陰陽毒病脈證治第三>	百合病에서 소변을 볼 때마다 頭痛이 있으면 60일이면 낫고, 소변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頭痛이 없으면 40일이면 낫는다는 條文. ³⁴⁾
5	<腹滿寒疝宿食病脈證第十>	宿食이 上腕에 있으면 瓜蒂散으로 吐해야 하는데 腹中에 宿食이 不化한 경우는 頭痛이 있다는 條文. ³⁵⁾
6	<嘔吐噦下利病脈證治第十七>	茱萸湯에도 頭痛이 있다는 條文. 마찬가지로 《傷寒雜病論》과 중복된다. ³⁶⁾
7	<嘔吐噦下利病脈證治第十七>	微風으로 脈緊하고 頭痛이 있는 경우에도 文蛤湯을 쓴다는 條文. ³⁷⁾
8	<婦人產後病脈證治第二十一>	產後感風의 頭痛에 陽旦湯을 쓰는 경우의 條文. ³⁸⁾
9	<婦人產後病脈證治第二十一>	竹葉湯 條文에 頭痛이 있음. ³⁹⁾
10	<婦人產後病脈證治第二十一>	三物黃芩湯證에 四肢 煩熱 頭痛이 있으면 小柴胡湯을 쓰고, 頭痛이 없고 煩이 있으면 三物黃芩湯을 쓴다는 條文. ⁴⁰⁾

發欬唾. 上揭書, p.292.

27) 傷寒發熱, 頭痛, 微汗出. 發汗, 則不識人. 熏之則喘, 不得小便, 心腹滿. 下之則短氣, 小便難, 頭痛, 背強. 加溫針則衄. 上揭書, p.307.

28) 傷寒發熱, 口中勃勃氣出, 頭痛, 目黃, 衄不可制, 貪水者必嘔, 惡水者厥. 若下之, 咽中生瘡, 假令手足溫者, 必下重便膿血. 頭痛目黃者, 若下之, 則兩目閉. 貪水者, 脈必厥, 其聲嚶, 咽喉塞. 若發汗則戰栗, 陰陽俱虛. 惡水者, 若下之則裏冷不嗜食, 大便完穀出, 若發汗則口中傷, 舌上白苔, 煩躁, 脈數實, 不大便, 六七日後, 必便血. 若發汗, 則小便自利也. 上揭書, p.308.

29) 上揭書, p.110.

30) 上揭書, p.46.

31) 問曰: 陽病十八何謂也? 師曰: 頭痛, 項, 腰, 脊, 臂, 腳掣痛. 陰病十八何謂也? 師曰 欬, 上氣, 喘, 噦, 咽, 腸鳴, 脹滿, 心痛拘急. 五臟病各有十八, 合爲九十病. 人又有六微, 微有十八病, 合爲一百八

《金匱要略》은 雜病을 주로 論한 것인데 《傷寒雜病論》과 같이 傷寒에 관한 일관된 病症을 論한 것이 아니고 여러 일반 病症을 다양하게 論한 것이어서 頭痛을 분류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成無己의 註解를 미루어 생각해 볼 때 1번 條文의 경우 頭痛은 陽病인데 陽病은 外症이며 表證이므로 太陽證에 屬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번 條文은 瘧病에 頸項強急의 證이 있다는 條文인데 역시 太陽病이기 때문이며, 3번 條文의 頭痛도 濕病의 경우는 太陽證에 屬한다고 이미 成無己가 《傷寒雜病論》에서 밝힌 바 있다. 4번 條文의 경우 魏荔彤은 《金匱要略方論本義》⁴¹⁾에서 百合病은 肺病이며 肺는 主氣한다. 또 小便은 氣化하면 能出하는데, 氣病이면 陽이 鬱하게 된다. 따라서 小便을 볼 때마다 陽이 聚해 있는 頭에 頭痛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는 百合病의 頭痛도 陽病에 屬한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5번 條文의 頭痛은 앞서 《傷寒雜病論》의 瓜蒂散證과 같이 辨證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6번 條文도 《傷寒雜病論》의 吳茱萸湯證과 내용이 같다. 7번 條文에서는 文蛤湯이 外感 風寒의 頭痛도 다스린다는 것인데 역시 太陽證에 속한다. 8번 條文은 7번 條文과 같이 太陽風證의 頭痛이며, 9번 條文도 太陽中風, 즉 傷風의 頭痛을 언급하고 있다. 10번 條文은 婦人이 차가운 풀방석에 앉아 있다가 得風된 경우생기는 頭痛도 外感病에 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金匱要略》에서도 頭痛의 원인은 外感表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4. 《金匱要略》 頭痛의 原因에 따른 分類

頭痛	寒邪가 原因	7條文	風寒邪가 表에 있음
	寒邪와 區別	瓜蒂散證, 濕家	辨證의 기준이 됨
	其他原因	吳茱萸湯證	寒氣가 上攻.

2. 證으로 분류한 傷寒書에 나타난 頭痛과 項強證의 考察

1) 宋代의 傷寒書

(1) 《類證活人書》의 問頭痛篇

朱肱은 《類證活人書》 <六十八問頭疼>에서 “頭疼者, 陽證也.”라고 하여 成無己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頭痛을 인식했다. 또 그는 <六十八問頭疼>에서 《傷寒雜病論》을 위주로 인용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參照된 條文은 麻黃湯, 桂

枝湯, 小柴胡湯, 承氣湯, 吳茱萸湯, 瓜蒂散이 있는데, 이들 條文은 <辨瘧濕喝脈證第四>, <辨太陽病脈證並治法第六>, <辨少陽病脈證並治法第九>, <辨厥陰病脈證並治法第十二>, <辨不可下病脈證並治法第二十>에서 引用하였다. 朱肱은 또한 太陰證과 少陰證과 厥陰證에 頭疼이 없는 것은 經脈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예외로 厥陰證에 吳茱萸湯 1개만 언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 張仲景은 《傷寒雜病論》 <傷寒例第三>에서 “若兩感於寒者, 一日太陽受之, 卽於少陰俱病, 則頭疼”에서 볼 수 있듯이 傷寒에 太陽과 少陰이 兩感된 경우는 頭痛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서술하였다. 濕家頭疼의 경우는 瓜蒂末의 治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傷寒雜病論》 <辨瘧濕喝脈證第四>과 《金匱要略》 <瘧濕喝病脈證第二>이 동일한 條文이므로 어느 書籍을 中心으로 引用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또 本文 중 “陽明證, 頭疼, 不惡寒, 反惡熱, 胃實故也, 陽明氣實, 故攻頭也, 調胃承氣湯主之.”라고 引用하였는데, 확인결과 본래 調胃承氣湯의 條文에는 頭痛이 없었다.⁴²⁾ 그러나 調胃承氣湯의 여러 條文 중에서 《傷寒雜病論》, <辨陽明病脈證並治法第八>의 調胃承氣湯 條文⁴³⁾이 《類證活

病. 五勞, 七傷, 六極, 婦人三十六病, 不在其中. 清邪居上, 濁邪居下, 大邪中表, 小邪中裏, 馨飪之邪, 從口入者, 宿食也. 五邪中入, 各有法度: 風中於前, 寒中於暮, 濕傷於下, 霧傷於上, 風令脈浮, 寒令脈急, 霧傷皮膚, 濕流關節, 食傷脾胃, 極寒傷經, 極熱傷絡. 上揭書, p.335.

32) 病者身熱足寒 頸項強急 惡寒 時頭熱 面赤目赤 獨頭動搖 卒口噤 背反脹者 瘧病也 若發其寒者 寒濕相得 其表益虛 卽惡寒甚 發其汗已 其脈如蛇. 上揭書, p.336.

33) 濕家病, 身疼發熱, 面黃而喘, 頭痛鼻塞而煩, 其脈大, 自能飲食, 腹中和無病, 病在頭中寒濕, 故鼻塞, 內藥鼻中則愈. 上揭書, p.338.

34) 論曰: 百合病者, 百脈一宗, 悉致其病也. 意欲食復不能食, 常默默, 欲臥不能臥, 欲行不能行, 飲食或有不時, 或有不用聞食臭時, 如寒無寒, 如熱無熱, 口苦, 小便赤, 諸藥不能治, 得藥則劇吐利, 如有神靈者, 身形如和, 其脈微數. 每溺時頭痛者, 六十日乃愈. 若溺時頭不痛, 澹然者, 四十日愈. 若溺快然, 但頭眩者, 二十日愈. 其證或未病而預見, 或病四五日而出, 或病二十日或一月微見者, 各隨證治之. 百合病發汗後者 百合知母湯主之. 上揭書, p.341.

35) 脈緊如轉索無常者, 有宿食也. 脈緊, 頭痛, 風寒, 腹中有宿食不化也. 上揭書, p.372.

36) 乾嘔, 吐涎沫, 頭痛者, 茱萸湯主之. 上揭書, p.399.

37) 吐後, 渴欲得水而食飲者, 文蛤湯主之. 兼主微風, 脈緊, 頭痛. 上揭書, p.401.

38) 產後風續之數十日不解, 頭微痛, 惡寒, 時時有熱, 心下悶, 乾嘔, 汗出, 雖久, 陽旦證續在耳, 可與陽旦湯. 上揭書, p.416.

39) 產後中風, 發熱, 面正赤, 喘而頭痛, 竹葉湯主之. 上揭書, p.416.

40) 《千金》 三物黃芩湯 治婦人在草蓐自發露得風, 四肢苦煩熱, 頭痛者, 與小柴胡湯. 頭不痛但煩者, 此湯主之. 上揭書, p.417.

41) 魏荔彤(1720), 《金匱要略方論本義》, 김준기 監修, 남형문화, 2000, pp94-96.

42) 《傷寒雜病論》의 原文은 “傷寒不大便六七日, 頭痛有熱者, 與承氣湯. 其小便清者, 知不在裏, 仍在表也. 當須發汗, 若頭痛者必衄, 宜桂枝湯”이며, 調胃承氣湯과 관련된 條文에는 頭痛이 없다.

43) “發汗後, 惡寒者, 虛故也. 不惡寒, 但熱者, 實也. 當和胃氣, 與調胃承氣湯.” 張機(206), 《仲景全書》, 集文書局(影印), 1983, p141.

人書》에 인용된 것과 가장 유사한 形態를 가지고 있지만 頭痛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傷寒雜病論》의 承氣湯은 사실 “承氣湯類⁴⁴⁾”를 말하는 것인데, 朱肱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承氣湯類의 處方으로 調胃承氣湯을 選擇하였을 것이며, 朱肱의 이러한 思想은 後代의 많은 醫家들에게 至大한 影響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 朱肱은 若已發汗, 或未發汗, 頭痛如破者의 治法으로 連須蔥白湯, 葛根蔥白湯을 제시하였는데, 이 두 處方은 훗날 《傷寒證治準繩》과 《傷寒論綱目》에도 引用되었다. 《類證活人書》에서는 頭項強痛에 대해서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2) 《傷寒百證歌》의 頭疼歌篇

許叔微는 《傷寒百證歌》 <第六十七證·頭疼歌>에서 頭痛을 언급하고 있는데, 頭痛을 經脈으로 分類하여 그 大綱을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인 湯證의 名稱은 생략하였다. 그는 三陽經이 頭部로 이르기 때문에 三陽의 邪가 頭部에 이르면 頭疼이 생긴다고 하였다. 또 頭痛을 太陽證, 陽明證, 少陽證, 三陰證, 停痰濕氣로 나누었으며, 구체적인 處方은 麻黃湯, 小柴胡湯 단 두 가지만을 例示하였다. 또 “三陰之中, 太陰少陰無頭痛. 惟厥陰有也.”라고 하면서 吳茱萸湯證을 제시하고, “停痰濕氣. 亦令人頭痛”이라 하면서 瓜蒂散證을 간접적으로 提示하였다. 아마도 許叔微는 傷寒治法의 暗記를 위해 《傷寒百證歌》를 지었을 것이며, 따라서 繁雜한 湯證의 구체적인 處方을 省略했을 것이다. 《傷寒百證歌》에서는 項強證에 대해서 따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다른 症狀의 副次的인 症狀으로 다루었다.

(3) 《傷寒明理論》의 頭痛, 項強篇

成無已는 《傷寒明理論》 <頭痛篇>에서 麻黃湯, 桂枝湯, 調胃承氣湯을 언급하였다. 또 “頭痛一切屬三陽經也. 而陰病亦有頭痛乎. 太陰少陰二經之脈. 皆上至頸胸中而還. 不上循頭. 則多頭痛之證. 惟厥陰之脈. 循喉嚨之後. 上入頰額. 連目上出額. 與督脈會於巔. 病亦有頭痛.”라고 하면서 吳茱萸湯을 例示하였다. 이는 《傷寒雜病論》에서 註解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다. 또 《傷寒雜病論》에서는 “傷寒不大便六七日, 頭痛有熱者, 與承氣湯.”이라 하였는데, 《傷寒明理論》에서는 “太陽病頭痛發熱. 汗出惡風者. 中風也. 桂枝湯主之. 雖有傷寒六七日不大便. 頭痛有熱者. 而與

調胃承氣湯下之”라고 하여 朱肱의 《類證活人書》와 같이 調胃承氣湯을 제시하였다. 이 文章은 承氣湯 條文에서 “承氣湯”만 “調胃承氣湯下之”로 바꾼 것이다. 즉 成無已는 條文의 承氣湯을 調胃承氣湯으로 보았다. 또 成無已는 《傷寒明理論》에 <項強篇>을 따로 分類하였는데 특히 桂枝加葛根湯, 葛根湯, 桂枝加葛根湯을 언급하였다. 이는 “几几然”도 넓은 意味의 項強證으로 보고 項強에 포함된 것이라 생각한다. 또 《金匱要略》의 桂枝加栝蒌湯⁴⁵⁾도 제시하였다. 이는 瘧病과 瘧病의 項強도 모두 項強證의 일부분으로 본 것이다. 이 외에도 項亦強如柔狀에는 大陷胸湯丸도 언급하였다. 이처럼 成無已는 項強의 유사한 症狀도 모두 《傷寒明理論》에 포함하여 著述하였다고 할 것이다.

2) 明代의 傷寒書

(1) 《傷寒證治準繩》의 太陽證과 頭痛, 項強證

王肯堂은 그의 저서 《傷寒證治準繩》<頭痛篇>에서 여러 서적을 引用하여 傷寒頭痛을 정리하였다. 《傷寒雜病論》에서 引用된 처방으로는 承氣湯, 桂枝湯, 十棗湯, 四逆湯, 小柴胡湯, 瓜蒂散, 吳茱萸湯 등이 있다.

이 외에 犀角地黃湯, 茅花湯, 竹葉石膏湯, 調胃承氣湯, 白虎加白芷湯, 白芷石膏葛根川芎湯, 小建中湯, 白虎湯, 桂枝麻黃各半湯,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 理中湯俱加川芎細辛, 小柴胡湯麻黃附子細辛湯, 獨活湯, 石膏川芎湯 등을 六經辨證에 따라 治法을 제시하였다. 또한 《類證活人書》의 連須蔥白湯, 葛根蔥白湯도 引用하였다.

특히 그는 “脈浮頭痛太陽也. 須刺完骨京骨. 又云. 表證頭疼惡寒發熱刺合谷”, “如脈浮而頭痛過在手足太陽刺完骨京骨. 如脈浮而長過在手足陽明刺合谷衝陽. 如脈浮而弦過在手足少陽刺陽池丘墟風府風池此刺頭痛之法也”⁴⁶⁾라 하면서 張雲岐의 傷寒頭痛針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처럼 王肯堂은 《傷寒雜病論》에만 局限하지 않고 여러 서적을 참조하여 다양한 治法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王肯堂은 項強篇을 따로 두었는데, 成無已와 마찬가지로 “項背强几几”과 瘧病, 瘧病도 모두 項強證에 포함하여 桂枝加葛根湯, 葛根湯, 桂枝加栝蒌湯,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 大陷胸丸 등을 기술하였으며, 이외에도 “傷寒四五日身熱

44) 小承氣湯, 大承氣湯, 調胃承氣湯 厚朴三物湯, 厚朴七物湯 등이 있다.

45) 太陽病 其證備 身體强 几几然 脈反沈遲 此爲瘧 栝蒌桂枝湯主之.

46) 이 文章은 《傷寒論綱目》에도 역시 引用되었다.

惡風頭項強脅下滿手足溫而渴者小柴胡湯”이라는 醫案을 제시하였다.

(2) 《傷寒括要》에서 李中梓의 見解

李中梓는 《傷寒括要》<頭痛>에서 頭痛의 位置에 따라 六經을 配屬하였다. 그에 따르면 巔頂腦後痛은 太陽인데 有汗惡寒에는 桂枝湯, 無汗惡寒에는 麻黃湯을 쓰고, 頭額痛은 陽明인데 症狀에 따라 調胃承氣湯, 小承氣湯을 사용하고, 頭角痛은 少陽인데 小柴胡湯加川芎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또 巔頭痛은 厥陰이므로 吳茱萸湯을 사용하고, 太陰頭痛은 二陳湯加枳實川芎細辛, 少陰頭痛은 麻黃附子細辛湯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이 외에 風溫病이나 陰毒 痰厥, 氣厥不得降 등의 原因으로 생긴 頭痛은 이 理論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또 《傷寒括要》<項強>에서는 太陽項強, 無汗, 脈浮緊에 麻黃湯을, 有汗脈緩에는 桂枝湯을, 瘕證項強에는 小續命湯을, 柔瘕에는 大陷胸丸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이처럼 李中梓는 《傷寒雜病論》의 處方に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간결하게 要約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傷寒六書》의 頭痛과 項強

陶華는 《傷寒六書》의 <頭痛>을 《傷寒雜病論》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간단히 整理하였다. 책의 本文에서 직접 明示된 處方은 調胃承氣湯, 小柴胡湯, 瓜蒂散, 吳茱萸湯 등이며, 간접적으로는 桂枝湯과 麻黃湯을 明示하였다.⁴⁷⁾ 또한 마지막에 “若痛連於胸, 手足俱青, 爲眞頭痛, 必死矣”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하나 덧붙였다. 《傷寒六書》<項強>은 葛根湯과 桂枝湯, 大陷胸湯의 證으로 분류하여 敘述하였다.

3) 清代의 傷寒書

(1) 《傷寒尋源》의 頭痛과 項強

呂震名은 《傷寒雜病論》의 原文에 충실하면서도 考證學의 研究方法에 따라 經書를 중심으로 傷寒頭痛을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傷寒尋源》<頭痛>에서 頭項強痛은 모두 太陽證이므로 모두 太陽의 病이기 때문에 頭痛과 項強을 같은 疾病으로 묶어 설명하였다. 또 그는 《傷寒雜病

論》에서 麻黃湯, 桂枝湯, 承氣湯, 五苓散, 四逆湯, 吳茱萸湯의 條文을, 또 項強證에는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 桂枝加葛根湯, 葛根湯, 大陷胸丸의 條文을 제시하였다. 呂震名은 朱肱, 成無己, 王肯堂, 李中梓, 陶華 등 많은 醫家들이 引用한 調胃承氣湯 대신 “傷寒不大便六七日, 頭痛有熱者, 與承氣湯”의 條文을 《傷寒雜病論》에 根據하여 原文 그대로 引用하였다.

(2) 《傷寒大白》의 頭痛, 項強的 考證

奏之楨은 《傷寒大白》에서 傷寒頭痛은 모두 風寒이 그 原因이지만, 治療方法은 氣候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하면서 “南北方宜發表不同論”을 제창하였다. 예를 들어 陰症頭痛은 寒邪가 陰經으로 直中한 것인데 이 症狀은 北方地域에 주로 있고, 江西, 浙江地域에는 드물다고 하였다. 따라서 추운 北方地域이나 겨울철에는 傷寒方을 위주로 處方하고, 春夏秋의 계절이나 南方地域에는 後世方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奏之楨는 한 증상에 두 가지 처방을 제시하였는데, 太陽頭痛 無汗脈浮緊의 경우 北方冬月은 麻黃湯을 南方에서는 羌活敗毒散을 쓰고, 有汗脈浮緩의 경우 北方冬月은 桂枝湯을 南方에서는 加減防風湯合川芎湯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 《傷寒雜病論》의 頭痛條文과 관련된 處方을 살펴보면⁴⁸⁾ 桂枝湯, 麻黃湯, 小柴胡湯, 調胃承氣湯, 小承氣湯, 瓜蒂散, 吳茱萸湯, 十棗湯이 있다. 이 외의 傷寒應用方으로는 葛根湯加蔥白白芷升麻, 白虎湯加葛根白芷, 柴胡防風湯, 小柴胡湯加川芎入膽, 防風散加石膏乾葛, 大乾葛湯, 芎蘇瀉白散, 竹葉石膏湯 등이 있으며, 後世方으로는 防風神朮湯, 羌活選奇湯, 二陳湯加南星石菖蒲, 平胃二陳湯, 導痰湯, 控涎丹, 樞連二陳湯加膽星, 四物湯加黃柏知母, 羌活沖和湯, 加減防風湯, 川芎湯, 柴胡防風湯을 열거하였다.

《傷寒大白》의 處方은 비교적 《傷寒雜病論》의 條文에 충실하였으며, 그 應用方을 地域과 氣候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또 項強篇을 따로 두었는데, 項強의 原因을 크게 傷寒項強과 瘕病項強으로 나누었다. 傷寒項強에는 麻黃加葛根湯과 陶氏推展防風羌活湯의 장점을 취하여 羌活加葛根湯을, 桂枝

47) “頭痛, 脈浮緊, 無汗惡寒, 可發汗. 頭痛, 脈浮緩, 有汗惡寒, 宜解肌, 照前時令用藥.” 陶節菴(1445), 《傷寒六書》,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71~72.

48) 奏之楨(1714), 《傷寒大白》, 大成文化社, 1984, pp.67~74.

加葛根湯과 陶氏推展加減沖和湯의 장점을 함하여 防風加葛根湯을 만들었다. 또 瘧病項強에는 括藁桂枝湯, 葛根湯, 桂枝加葛根湯, 麻黃加葛根湯,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 등의 處方을 제시하였다.

(3) 《傷寒捷訣》의 頭痛

《傷寒捷訣》은 歌賦形式을 가진 책으로 傷寒의 大綱을 暗記하기 위해 編纂된 서적이다. 이 책은 暗記를 위한 책이므로 그 내용이 매우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太陽經은 羌活沖和湯에 倍用川芎하고, 陽明經은 調胃承氣湯, 少陽經에는 小柴胡湯을 사용하라 하였다. 또 三陰經의 頭痛에는 厥陰經만 언급하고 湯名(吳茱萸湯)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책은 太陽證의 麻黃湯과 桂枝湯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오직 羌活沖和湯 한 가지만 제시하는 등 《傷寒雜病論》의 條文에는 크게 拘碍받지 않았다.

(4) 《傷寒論綱目》의 頭痛項強篇

沈金鰲는 당시 유행했던 考證學의 學風을 따라 張仲景의 條文을 “綱”이라 하고, 그 밑에 後代 醫家들의 學說을 “目”으로 두어 《傷寒論綱目》을 編纂하였다. 沈金鰲는 呂震名과 마찬가지로 頭痛과 項強을 한 개의 篇으로 편집하여 <頭痛項強>이라 하고 6개의 綱目을 두었는데, 傷寒頭痛의 綱目은 4개이고 項強症의 綱目은 2개이다.

이 중에서 《傷寒雜病論》의 頭痛條文⁴⁹⁾의 處方은 麻黃湯, 桂枝湯, 承氣湯, 十棗湯, 小柴胡湯, 吳茱萸湯, 瓜蒂散이 있으며, 朱肱, 李杲, 柯琴, 王肯堂, 成無己, 張兼善, 吳綏, 王好古의 著書에서 連須蔥白湯, 葛根蔥白湯,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 竹葉石膏湯, 調胃承氣湯, 葛根湯加蔥白白芷, 白虎加白芷湯, 小柴胡湯加川芎膽, 理中湯川芎細辛, 白虎湯, 麻黃附子細辛湯, 桂枝麻黃合半湯을 引用하였다.

이 외 項強症의 處方으로는 葛根湯, 桂枝加葛根湯, 桂枝加栝藁湯, 大陷胸湯, 大陷胸丸, 理中丸, 小柴胡湯, 附子湯, 陰毒甘草湯, 正陽散, 葛根生薑豉湯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에는 張雲岐의 針法을 “如脈浮而頭痛. 過在手足太陽. 刺完骨, 京骨. 脈浮而長. 過在手足陽明. 刺合谷, 衝陽. 脈浮而弦. 過在手足少陽. 刺陽池, 丘墟, 風府, 風池. 此刺頭痛之法也”라고 引用하여 추가하였다.⁵⁰⁾

沈金鰲는 歷代醫家들의 醫案을 爲主로 傷寒條文을 註解하였으며 各各 “目”말미에 鰲按이라하여 자신의 意見을 피

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處方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기존 醫書의 說明을 약간 더 補充하였을 뿐이었다.

III. 考察

이상, 證으로 분류한 傷寒書 10種에서 頭痛, 項強篇을 考察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傷寒雜病論》의 頭痛, 項強 25條文과 《金匱要略》의 頭痛, 項強 10條文과 比較해 보았다. 그 결과 證으로 분류한 傷寒書에서 頭痛과 관련된 條文은 모두 《金匱要略》의 10條文을 인용하지 않았으며 모두 《傷寒雜病論》에서 引用한 것이었다. 특히 가장 많이 인용된 吳茱萸湯의 頭痛 條文은 《金匱要略》의 條文이라고 기보다는 《傷寒雜病論》의 條文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金匱要略》의 頭痛 條文이 《傷寒雜病論》의 頭痛 條文과 다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引用되지 않았다는 것에 근거를 둘 수 있었다. 즉 頭痛은 傷寒醫家들에게는 일반적으로 《傷寒雜病論》의 頭痛만 意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傷寒雜病論》의 頭痛, 項強 條文과 傷寒書의 頭痛篇, 項強篇의 內容을 서로 比較해 圖表로 만들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傷寒雜病論》의 頭痛條文과 證으로 분류한 傷寒書 10種의 頭痛, 項強篇 比較表

傷寒雜病論과 證으로 분류한 傷寒書籍의 頭痛, 項強 條文引用 比較표												
條文	《傷寒雜病論》	類證活人書	傷寒百證歌	傷寒明理論	傷寒證治準繩	傷寒括要	傷寒六書	傷寒尋源	傷寒大白	傷寒捷訣	傷寒論綱目	條文引用回數
1	...陽中於邪, 必發熱, 頭痛...											
2	...以其脈上連風府, 故頭項痛...			◇							◇	2
3	...若兩感於寒者, ... 則頭痛...											

49) 沈金鰲(1766), 《沈金鰲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657~659.

50) 이 글은 앞에서 언급한 《傷寒證治準繩》과 거의 같은 部分을 引用하였다. 《傷寒證治準繩》의 引用文은 다음과 같다. “脈浮頭痛太陽也 須刺腕骨京骨 又云 表證頭疼惡寒發熱刺合谷”, “如脈浮而頭痛過在手足太陽刺完骨京骨 如脈浮而長過在手足陽明刺合谷衝陽 如脈浮而弦過在手足少陽刺陽池丘墟風府風池此刺頭痛之法也.”

며, 《傷寒捷訣》에서는 1회 引用하였다.

표 6. 《金匱要略》의 頭痛條文과 證으로 分類한 傷寒書 10種의 頭痛, 項強篇 比較表

《金匱要略》과 證으로 分類한 傷寒書籍의 頭痛, 項強 條文引用 比較표		類證活人書	傷寒百證歌	傷寒明理論	傷寒證治準繩	傷寒括要	傷寒六書	傷寒尋源	傷寒大白	傷寒捷訣	傷寒論綱目
條文	《金匱要略》										
1	…陽病十八何謂也? 師曰 頭痛, 項...										
2	…病者身熱足寒 頸項強急, ...瘥病也...			◇						◇	
3	…濕家病, 頭痛鼻塞而煩...										
4	…百合病者 ...每溺時頭痛者...										
5	…脈緊, 頭痛, 風寒, 腹中有宿食不化也...										
6	乾嘔, 吐涎沫, 頭痛者, 吳茱萸湯主之.										
7	…文蛤湯主之. 兼主微風, 脈緊, 頭痛...										
8	…產後風 頭微痛 可與陽旦湯...										
9	產後中風 ...喘而頭痛, 竹葉湯主之										
10	…四肢苦煩熱, 頭痛者, 與小柴胡湯.										
기타	…瘥病 ...桂枝加芍藥湯...			◇	◇					◇	◇
	…柔痙證 ...大陷胸湯(丸)...			◇	◇	◇	◇	◇	◇		◇

도표에서 “○”는 頭痛만 있는 條文, “◇”는 項強이 언급된 條文이다.

또한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項強과 연관된 條文은 《金匱要略》의 條文도 자주 인용되었는데, 특히 瘥病, 瘥病, 柔瘥에 관한 桂枝加芍藥湯, 大陷胸湯丸을 引用하였으며, 이외의 《金匱要略》 條文은 거의 引用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와 표 6에서의 결과는 歷代醫家들이 다양한 醫案들을 제시하면서도 引用條文은 거의 비슷한 條文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었다. 吳茱萸湯의 경우에도 실제 臨床에서는 桂枝湯이나 麻黃湯 보다는 활용도가 떨어 지지만 책에 기재하는 횟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이는 醫家들이 《傷寒雜病論》과 《金匱要略》의 原文을 보고 獨창

적인 醫案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이전 醫家들의 著述을 주로 참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傷寒證治準繩》이나 《傷寒大白》, 《傷寒論綱目》은 다른 醫家들보다 《傷寒雜病論》의 原文을 다소 충실하게 考證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IV. 結論

傷寒論의 頭痛은 “頭痛者太陽也”⁵⁴⁾라는 成無己의 定義처럼 太陽證의 代表的인 症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傷寒雜病論》, 《金匱要略》의 頭痛, 項強 條文과 證으로 分類한 傷寒書 10種의 頭痛, 項強編을 比較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傷寒雜病論》은 크게 세 部分으로 分類할 수 있었는데 <辨脈法第一>에서 <辨瘥濕渴脈證第四>까지는 總論에 해당하였고, <辨太陽病脈證並治法上第五>에서 <辨厥陰病脈證並治法第十二>까지는 各論에 해당하였으며, <辨霍亂病脈證並治法第十三>에서 <辨發汗吐下後病脈證並治法第二十二>까지는 補遺나 失治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傷寒頭痛은 《傷寒雜病論》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는데, 後代의 傷寒書籍에서는 各論에 해당하는 <辨太陽病脈證並治法上第五>과 <辨厥陰病脈證並治法第十二>사이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引用하였다. 또 몇몇 書籍에서는 霍亂과 濕家病의 頭痛을 다루기도 하였다.

後世醫家이 《傷寒雜病論》에서 가장 많이 引用한 頭痛處方은 吳茱萸湯이었다. 그 다음은 承氣湯類(調胃承氣湯, 小承氣湯)였다. 麻黃湯, 桂枝湯 등은 《傷寒捷訣》에서 羌活沖和湯으로 간략하게 대치되기도 하였으며, 《傷寒六書》에서처럼 湯名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醫家들이 《傷寒雜病論》과 《金匱要略》의 原文을 보고 獨창적인 醫案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이전 醫家들의 著述을 반복하여 참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傷寒證治準繩》이나 《傷寒大白》, 《傷寒論綱目》은 《傷寒雜病論》의 原文을 충실하게 考證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54) 上揭書, p.110.

“傷寒不大便六七日，頭痛有熱者，與承氣湯。”의 條文은 後代醫家들의 많은 研究가 이루어졌다. 《類證活人書》，《傷寒明理論》，《傷寒證治準繩》，《傷寒括要》，《傷寒六書》，《傷寒大白》，《傷寒論綱目》에서는 이를 調胃承氣湯으로 이해하였으며, 引用된 調胃承氣湯의 條文의 內容에는 “不惡寒，反惡熱”이나 “傷寒不大便六七日”을 포함하고 있었다. 《傷寒證治準繩》과 《傷寒捷訣》에서는 “蒸蒸發熱”이 포함된 傷寒條文을 引用하여 調胃承氣湯의 辨證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또 《傷寒大白》에서는 “傷寒不大便六七日，頭痛有熱者，與小承氣湯。”라면서 小承氣湯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條文의 “承氣湯”을 原文 그대로 引用한 證으로 분류한 傷寒書는 《類證活人書》，《傷寒證治準繩》，《傷寒尋源》，《傷寒論綱目》이었는데, 이 중 《傷寒尋源》에서 呂震名은 《傷寒雜病論》의 承氣湯 條文만 引用하고 다른 醫家들의 調胃承氣湯論은 언급하지 않았다.

《金匱要略》의 頭痛條文은 일반적으로 引用되지 않았다. 그러나 項強證은 자주 引用되었는데 특히 瘧病, 瘧病, 柔瘧에 관한 桂枝加括蕪湯, 大陷胸湯丸만이 인용되었다.

傷寒醫家들은 “几几”의 證을 가지는 葛根湯이나 桂枝加葛根湯 種類의 條文을 項強證에 포함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하였다.

參考文獻

1. 孟雄在. 『傷寒論概說』. 圓光大學校出版局. 1996.
2. 孟雄在 外. 『各家學說』. 大成醫學社. 2001.
3. 張機(206). 『仲景全書』. 集文書局(影印). 1983.
4. 蔡仁植. 『傷寒論譯註』. 高文社. 1991.
5. 張機(206). 『國譯金匱要略』. 李東建 譯. 書苑堂. 1996.
6. 洪元植. 『증보중국의학사』. 一中社. 2002.
7. 姜鎭春. 『傷寒學』. 一中社. 1992.
8. 柯琴(1669). 『傷寒來蘇集』. 趙輝賢 校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9. 朱肱(1108). 『國역활인서』. 권건혁 譯. 도서출판 반룡. 1999.
10. 唐宗海(1894). 『傷寒論淺注補正』. 劉智利 点校.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11. 魏荔彤(1720). 『金匱要略方論本義』. 김준기 監修. 남형문화. 2000.
12. 叶橘泉(1947). 『古本康平傷寒論』.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6.
13. 陶節菴(1445). 『傷寒六書』. 人民衛生出版社. 1990.
14. 沈金龍(1766). 『沈金龍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5. 奏之楨(1714). 『傷寒太白』. 大成文化社. 1984.